

축 사

河 英 洙 (대한간호학회장)



「대한간호」의 1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먼저 「대한간호」 100호 발간의 의의를 백일 잔치에 비유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기들의 백일 잔치를 특별히 마련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기가 그의 삶을 영유해 가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최초의 한 고비를 무사히 넘겼다는 데 대한 축하와 앞으로의 생이 행복과 보람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인 1953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간호잡지로 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간호」는 실로 많은 연륜을 통해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는 가운데 변화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겪으면서 이제 아기가 백일을 맞이 하듯이 「대한간호」 또한 100호의 발간을 돌파하는 의의 깊은 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면 관계로 「대한간호」의 그동안의 발자취들을 자세히 다 열거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특기 사항만을 골라 적어보면 우선 「대한간호」는 오늘날 간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수한 정기간행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기관지로서의 「대한간호」는 협회활동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어떤 점에서 협회사적인 유용한 자료들을 시대별로 수록하면서 협회와 더불어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의 중요쟁점과 경향들, 교수논단, 국내 외 간호교류 및 국제간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간호기사들을 성실히 다루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지면보수 교육특강, 특집기사들을 수록, 간호학술의 측면을 강화하였고 그 방향에 창의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독면에서 볼 때에도 「대한간호」는 가장 많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간호인들에 의해 애독되어지는 잡지로서 각계각층을 망라한 많은 회원들의 의무적인 참여로 그 친숙감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대한간호」가 초창기의 단순한 기관지로서의 기능에서 벗어나 오늘날 하나의 정기간행물로서의 특징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변화 발전이 그야말로 획기적인 보람된 것이었음을 새삼 인식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우리는 100호 발간에 즈음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발전을 찬양함과 동시에 「대한간호」의 계속적이고 창의적인 발전과 보다 우리 모두의 잡지로 만들기 위한 진지한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잡지들이 자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듯이 「대한간호」도 좀더 분명한 특징을 지닌 잡지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간호(보건간호를 포함)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임상간호 정기간행물과 같은 새로운 방향을 지향했으면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간호연구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분야는 임상간호중에서도 환자간호와 임상적간호연구 및 새로운 간호전달제도에 관한 연구라 하겠읍니다.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임상간호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며 또한 우리나라 간호계 잡지중 한 가지는 임상간호를 중심으로 임상에서의 환자간호사례연구,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임상간호의 활동을 폭넓게 다루는(미국의 A.J.N.이나 캐나다의 Nursing Mirror) 임상간호 정기간행물로의 완벽한 특징을 살리는데 강조를 둔 새로운 출발을 다졌으면 합니다. 그러므로써 업무와 연구 혹은 교육의 관계를 좀더 밀접히 하고 동시에 보다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00호의 발간을 기념하면서 발간의 횟수보다는 질과 내용에 강조를 둔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잡지로 무단히 성장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의 수록에 대한 만족에서 탈피하여 좀더 임상간호에 초점을 맞춘 목적지향적인 그리고 가장 많은 추를 차지하는, 임상간호원들의 전문적 잡지로서의 알찬 출발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25년이라는 결코 짧지않은 연륜을 통해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극복, 오늘의 「대한간호」로 훌륭히 키워주신 모든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제 100호를 넘어 앞으로 발전을 계속 하는 가운데 무한한 발전과 창의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참 간 호 와 소 비 절 약 은 복 지 사 회 건 설 의 길